

단말-쓰말

김 정 안(KIST)

분명히 행복한 미래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

일본의 경기 하강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Wall Street 및 Tokyo Stock Market의 주가 하락을 가져오고 국내 증시마저 동반 하락하여 주식투자로 한몫 잡으려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요즈음은 참으로 죽을 맛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의 벤처 창출로 대박꿈을 키워가는 사람 또한 끊이지 않는다.

부자가 망해도 삼대(三代)는 간다는 말이 있다. 비록 일본이 어렵다해도 훌륭한 기술을 가졌기에 아직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기는 하겠지만 경제 구조가 견실하여 걱정없다고 정부가 누차 주장한 바 있으니 우리 서민으로서는 믿어볼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은가.

근래 유럽에는 팡우병과 구제역이 확산하여 농민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도 음식점에 가서 고기를 먹기가 조금은 쑥스럽다. 그래서인지 닭고기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 보면 양계장을 운영하는 농민은 별 무소득이고, 중간 상인의 농간(유통마진)때문에 궁극적으로 실수요자인 우리들 소비자만 비싸게 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편히 먹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교육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짚어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 물론 정책 입안자들도 머리가 아플 것이다.

나는 자식들이 올바른 정신 자세를 지녀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공부하고 즐기기를 원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어느 부모나 다 한결같이 자식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을 뒷받침하는 마음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무조건적 줄서기이다.

고등학교 시절 누가 잠을 덜자고 열심히 공부했나에 따라서 그의 인생 향로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치유책은 없이 단기 처방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제도가 잘못 되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의 핫뉴스로서 경찰청 고위 공무원 차의 운전자는 안전벨트 매는 법도 모른다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초개같이 팽개치면서까지 안전벨트 매지 않는 운전자 단속에 나선다고 야단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죽을 힘을 다해 자식 교육 시켜서 법을 어겨도 편안히 사는 직업을 갖도록 하자는 마음을 가질 수 밖에.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도 미래에는 잘 살 수 있으며 열심히 공부해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사범고시에 합격하여 고위공직자나 판점사가 되어도 별 볼일 없어 환경미화원의 생활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록 된다면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는 부모가 사라질까? 그렇게 된다고 우리 국민들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할 걸 !!

좋은 교육 제도를 제안해도 별 무소독인 것을 어느 누가 모르나.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들이 적은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모두가 고민해 보는 것이 교육 제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 같다.

의보 재정이 적자가 되든 말든 의사나 약사만 배 부르면 그만이지 환자의 고통을 알 바 아니지. 암 그렇고 말고. 자식 교육 열심히 시켜서 의대나 약대 보내야 나중에 자식들은 잘 먹고 살지.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이민이라도 가려고 하지. 대학 입학 당시에 2등이면 영원한 2등이 되는 삶을 살아야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 박사학위 취득해도 환경미화원과 별로 나은 것이 없으므로 박사학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이 좋은 징후인지 나쁜 징후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의 위상은 끝없는 추락의 날개를 달았으니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주가 하락과 같은 꼴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교육 혁신의 지름길일 것 같다. 2등이나 꼴지가 있어서 1등이 빛나듯이 모든 사람이 1등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 봄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